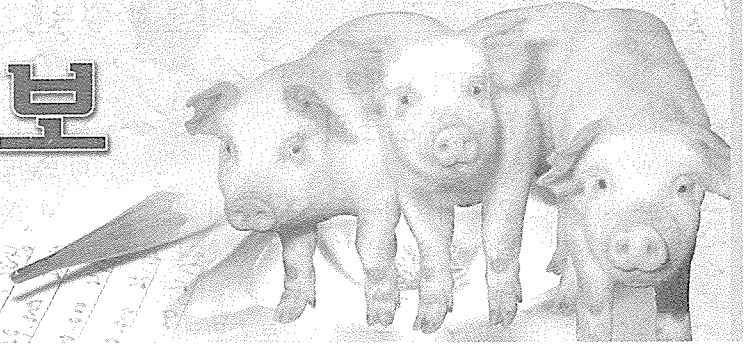


축산정보



한·미 FTA저지 100만인 총 쫓기대회 개최



‘한·미FTA 저지! 범국민총궐기대회’를 앞두고,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농대위)는 전국 9개 시도청 총 20여만명 규모의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1월 22일 서울 광장에서 농민, 시민, 학생 등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FTA 저지 범국민총궐기 대회’를 열고 한·미FTA협상의 종단을 거듭 촉구하는 했으며, 이에 양돈협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각 도별로 농대위 결성에 참여, 총 궐기대회에 적극 동참했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 국 13개 도시에서 7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에 열렸으며, 이와 동시에 22일부터 시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농기계 등을 이용한 차량 시위와 촛불시위를 벌인다. 또한 1주일 뒤인 29일과 12월 6일 ‘한미FTA저지 2,3차 총궐기’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농대위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100만 항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400만

농수축산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농업파탄협상, 농민말살협상, 경제예속협상인 한·FTA 협상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굳센 의지로 도청으로 집결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한·미FTA 협상 종단을 선언하라”고 경고했다.

美쇠고기 검역 불합격으로 반송·폐기조치

광우병 위험물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
해당 작업장 수입 승인 취소

농림부는 지난 10월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8.9t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뺏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지난 11월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수입 물량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되고 미국 해당 농장의 수입장 승인 역시 취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발견된 뺏조각이 광우병 위험물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검역원은 지난 23일 이같은 결과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했고 농림부도 이날 중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해당 작업장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쇠고기 수출 위생 조건 엄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양국간 합의된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 살고기에서 척수 신경절 등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지되고, 일반 뼈 조각 등 단순한 이물질이 나오면 해당 미국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지난 9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이후 두 번째 수입물량 6개 품목 3.6t이 현재 수입돼 계류중이다.

한·미 FTA 체결하면 양돈업 가장 큰 피해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부문이 양돈업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한, EU 간 관세철폐가 되면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등) 수입이 3천8백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물은 1천5백억원, 낙농품은 1천3백억원 규모로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EU와 FTA가 체결되면 이같은 규모로 축산물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고민감품목(관세일부인하)으로 분류, 관세철폐를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지난 11월 24일 외교부 주최로 열리는 한·미 FTA 공청회에서 협상 목표중 하나로 농업분야 민감성 반영을 적극 요구하는 한편, 특히 EU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협상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를 구성, 우리 측 대응전략 구축에 활용할 방침이다.

등급판정 육량·육질 구분 추진



축산물등급판정소가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분리해 판정하고자 개정중인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은 육량과 육질을 병행해서 표기토록 한데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지적됐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지난 10월 30일 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돼지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

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육량과 육질을 구분해 판정하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현실적으로 객관화된 기준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양돈협회 정선현 전무는 수입육 개방 하에 생산자에게는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는 계기를 주고, 소비자에게는 수입육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육질 등급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한국축육개량협회 장현기 부장도 등급판정기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새로운 등급제가 소매단계와 잘 연계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온도체 등급판정에서의 객관성 확보를 지적하기도 했다.

경상대학교 주선태 교수는 육질등급판정 정착이 이뤄질 시점에 앞서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문화가 삼겹살과 목살을 주로 소비한다는 독특한 문화가 있으므로 우리만의 독특한 기준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의모임 강광파 상임이사는 개정안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는 의아하다며 육질등급 평가기준에 근내지방도 보다는 PSE육 여부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좌우하므로 이를 고려할 것과 온도체 판정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한편 주제발표를 맡은 등판소 운영탁 사업본부장은 개정안과 관련, 그동안 육질과 육량을 구분하자는 요구가 많았으며 도입배경을 설명하고, 육질등급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단체, 제주도에서 한·미 FTA 협상 저지 시위 벌여

한·미 FTA 제4차 협상이 지난 10월 23일부터 5일간 제주 서귀포시 중문단지에서 개최된 가운데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 제주지역 도협의회를 비롯해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등 축산관련단체와 한·미 FTA 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제주도 공항을 비롯하여 중문단지에 집결, 한·미 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원정 투쟁을 벌였다.



농대위는 또 지난 22일 제주공항에서 농대위 대표자 기자회견을 갖고 컨벤션센터에서 전야제를 갖는 한편, 23일 FTA 제4차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제주 농축산 비대위 결의대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한·미 FTA 4차 협상 저지 제주 1, 2차 대회 및 보고대회도 진행됐다.

2015년까지 돼지개량 목표 재설정 추진

10년 장기 돼지개량 목표가 새로 설정된다.

축산연구소는 지난 10월 27일 돼지개량목표(안) 및 사업추진방안을 설명하고, 11월 중 공청회를 거쳐 2015년까지 10년 장기의 돼지개량 목표를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돼지개량목표(안)에 따르면 종돈의 산육능력 개량을 위해 △랜드레이스의 경우 2015년에 등지방두께 14.0mm(△0.03), 사료요구량 2.2kg(△0.02), 90kg 도달일령 132일 △대요크셔의 경우에는 등지방두께 14.0mm(△0.01), 사료요구량 2.2kg(△0.02), 90kg 도달일령 132일 △듀록은 등지방두께 12.5mm(△0.11), 사료요구량 2.1kg(△0.02), 90kg 도달일령 131일 등으로 목표치를 정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맛있고 부드러운 고기를 선호하며 육색이 진홍색이고 마블링이 있고 driip이 없는 돼지고기를 선호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국내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종돈개량을 목표로 육질형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개량목표 대상 형질 가운데 등심면적은 종전에 대일 수출을 위해 설정된 목표로 현재는 대일수출 중단상태라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액비유통센터 8천만원씩 지원

내년부터 액비 살포 실적이 우수한 유통센터에 개소당 8천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민간 액비유통센터도 실적에 따라 정부 지원키로 했다.

최근 농림부는 액비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수 액비 유통센터를 6곳 선정해 개소당 8천만원(국고보조 4천만원, 지방비 4천만원)을 지원, 액비 살포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장비를 구입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액비 저장조를 책임 관리하고 처방서 발급실적이 우수한 유통센터에는 개소당 5개 내외의 액비저장조(200톤 기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액비 유통 민간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 민간업체를 액비유통센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단, 전년도 살포 실적이 200ha 이상, 액비 저장조(200톤 기준) 20개 이상을 책임지고 품질 및 저장조 관리가 가능한 센터에 한해 지원할 방침이다.

독일서 축산박람회 유치활동 전개

축산박람회 주관단체장들, 해외업체 초청 설명회 등 가져



▲ 지난 11월 14~17일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국제축산박람회(2006 EuroTier) 모습.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공동주관단체장들이 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국제축산박람회(2006 EuroTier)에 참석해, 내년에 대전에서 개최되는 한국국제박람회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지난 19일 귀국했다.

공동주관단체장(남호경 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최영렬 양돈협회장, 최준구 양계협회장, 장동일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들은 지난 14~15일 양

일간 하노버 박람회장에서 독일을 비롯한 EU국가 참가업체부스를 방문, 내년도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참가를 요청하는 한편 참가가 유력한 30여개 업체 대표들을 초청, 별도의 설명회를 갖았다.

이번 하노버 박람회에는 농림부 최염순 서기관과 한월브링크 농림부 농정자문관도 단체장들과 현지에서 합류, 유치홍보활동에 참여했다. 한편 하노버축산박람회는 양계분야 업체의 출품이 제외되었음에도 무려 1천4백여업체가 참여, 성황을 이루는 등 세계최대 규모임을 과시했다.

도축장 수수료 인상 추진

도축장 취급수수료 인상이 추진된다.

최근 농림부는 도축장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취급 수수료를 현행 두당 3%에서 5%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도축장 실명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도축장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상위 도축장 비율을 축소(0% 금지지원대상)하는 동시에 도축장 통폐합자금 지원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한편 전국 도축장은 작년 기준 110개소 돼지 가동율은 46%에 집계됐다.

돼지열병 항체 양성모돈 6천두 도태

정부가 제주도 내 돼지열병 백신항체(LOM주)를 근절하고 다시 일본으로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돼지열병 백신항체 근절대책 및 수출대책을 세웠다.

농림부는 지난 2004년 11월 23일 제주도 종돈장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이후 돼지 유래물질이 첨가된 사료관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으나, 양성 농가가 지속 발생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제주도 내 돼지열병 백신항체 양성농가 42농가에서 사육중인 백신항체 양성모돈 6천두를 전 두수 도태하는 등 모든 갱신사업을 2007년도 말까지 약 15개월간 추진키로 했다. 모든 6천두에

대한 갱신비용은 총 36억원(국비 6억, 지방비 6억, 자담 24억)이 지원된다. 이번 갱신사업은 내년까지 모든 도태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제주도 내 전 양돈장 출하돈 모니터링 검사 및 수출 육가공장과 계약농가 수출대비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내년도 연말까지 돼지고기 일본 수출재개를 위한 일본과의 협상을 준비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008년에는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돼지 소모성질환이 돼지열병 백신주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돼지 소모성질환 긴급방역 지원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말까지 돼지열병 검사키트 및 모돈 채혈 재료비, 소모성질환 검사키트 등 검사재료비 등 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돈열 항체양성률 40개 시군 80% 미만

돼지열병(돈열) 비육돈 항체 양성률 80%미만 지역이 40개 시군 559호로 조사됐다.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8월말까지 비육돈 돼지열병 항체 검사 두수는 12만4천720마리로 이 가운데 94.1%(11만7천305마리)가 양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역별 항체 검사에서 40개 시·군 559호에서 80% 이하의 양성률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말 돈열 항체 양성률은 비육돈 94.1%, 번식돈 97.5%, 자돈 93.8%로 집계됐다. 또 9월까지 항원 검사에서 전체 4만2천43마리 중 29마리가 양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정부에서는 돼지열병 혈청검사 결과 항체가 8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3항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 학교 급식 돼지고기 C등급 이상만

내년부터는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돼지고기가

C등급 이상으로 제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5일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돼지고기와 한육우의 경우 C등급 이상, 쇠고기와 닭고기는 1등급 이상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식재료 품질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모든 축산물은 HACCP(해썹)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생산된 것만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쌀의 경우 수확 후 1년 이내 것으로,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 '우수농산물 인증품' 등 표준 규격이상등급으로 제한했다.

제주산 돼지고기 내년부터 바코드 부착

내년 3월부터 전국 대도시 일부 대형매장에서 판매되는 제주산 진품 돼지고기에 돼지농장 등 사육정보가 기록된 바코드가 부착된다. 이 바코드에는 생산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농장의 정보와 해당 돼지의 생년월일, 품종, 유전자 정보, 도축, 가공정보 등이 기록된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24일 제주 돼지고기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향후 다른 지방의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제주도는 우선 돼지고기 가공업체와 영농조합법인 등 4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성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물돼지 출현을 대폭 상승, 돈육품질 적신호

최근 물돼지 출현율이 크게 상승, 농가 품질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가 지난 10월 실시한 돼지냉도체 육질판정 결과 1만1천7백79두 가운데 7.9%인 9백29두가 물돼지(PSE육) 판정을 받았다. 전년동월에 비해 0.2%P가 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전월과 비교할 때는 무려 1.3%P가 상승한 것이다. 특히 올 평균 물돼지 출현율 7.5% 보다도 0.4%P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돼지와 거세돈에서 물돼지 출현율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1등급 이상 출현율의 하락이 두드러지며 1+등

급의 경우 전월에 비해 2.3%P가, 1등급은 1.0%P가 각각 하락한 3.5%와 27%를 기록했다.

9월 돼지고기 수입량 감소

9월 돼지고기 수입량이 감소세를 보여 올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9월 수입량은 총 1만4,224톤으로 지난 8월 1만6,152톤에 비해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9월 수입량은 14만9,440톤으로 전년동기 13만 8,739톤에 비해 7.7%나 증가했다. 냉장돈육은 9월 한 달 동안 844톤, 냉동돈육은 1만3,381톤이 수입됐으며, 부위별로는 등심 123톤, 목심 2,640톤, 앞다리 807톤, 뒷다리 231톤, 삼겹살 7,985톤, 갈비 1,563톤 등이 수입됐다.

한편 국별로는 미국이 2,535톤(누계 42,374톤)으로 여전히 가장 많이 수입됐으며, 9월에는 칠레산이 대폭 증가하여 캐나다를 앞선 2,302톤이 수입됐다

9월 돼지고기 재고량 감소

9월 돼지고기 재고량이 8월에 이어 2개월째 감소한 가운데 삼겹살과 목등심의 재고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총 조사재고량은 3천233톤으로 전월대비 7.1% 감소했으며, 삼겹살과 목등심은 조사재고량이 각각 805톤, 300톤으로 전월대비 46.4%, 25%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안심은 46톤으로 전월대비 25.2%, 등심은 373톤으로 전월대비 31.4%, 후지는 724톤으로 전월대비 24.4%, 갈비는 266톤으로 전월대비 32.5% 큰 폭 감소했으며, 전지부위는 502톤으로 전월대비 5.7% 각각 감소했다.

PED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

농림부가 집계한 가축전염병 발생 자료에 따르면 PED(유행성설사병) 발생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집계 결과 PED는 25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20건보다 증가했으며, 발생두수는 9천68두로 전년 동기 3천71두 대비 3배 정도 대폭 증가했다.

한편 돼지 오제스키병(AD)은 9월말 2천227두에서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감소했으며, 돼지열병은 9월 현재 2건, 1천74두로 발생건수는 줄었으나 두수는 증가했다.

중돈 수입두수 MMA물량 80% 상회

올해 중돈 수입물량이 MMA(시장접근물량)의 80%를 상회했다. 지난 10월말 현재 중돈 수입두수는 1천482두로 올해 MMA물량 1천850두의 80.1%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5%가 증가했다.

국별로는 미국 58건, 837두가 수입됐으며, 캐나다 30건, 524두, 기타 5건, 121두가 수입됐다. 품종별로는 요크셔가 568두, 랜드레이스 464두, 듀록 353두, 버크셔 44두, 기타 17두로 집계됐다.

미국산 쇠고기 3년여만에 수입재개

미국산 쇠고기가 '03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수입됐다.

농림부는 지난 10월 30일 미국 캔자스 주 '크릭스톤팜스' 작업장의 등심, 갈빗살 등 3개 부위 9톤 물량의 쇠고기가 수입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03년 12월 이후 처음이며 수입 재개 결정이 내려진지 약 두 달 만이다. 한편 축산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기 근, 인분, 내년부터 사용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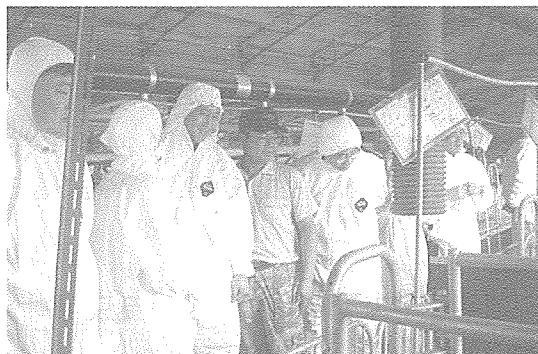
내년 7월부터 돼지고기 등에 쓰이는 ~근, ~인분 등의 단위를 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달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통해 거래 혼선 방지 및 국가 간 원만한 교역을 위해 고기의 경우 '근'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인분' 대신 100g을 기준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1근은 600g으로 써야 하며, 식당에서 1인분(人分)도 g으로 표시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식당 메뉴판에는 인분이 없어지면서 삼겹살 1인

분식의 표현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역원, 양돈현장 체험 학습의 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10월 20일~21일 양일간 '현장 학습의 날'을 마련, '현장 속의 가축방역, 우리가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충북 괴산의 양돈농가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방역 담당자들로 하여금 현장감을 체득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관계자들은 농가의 사육 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양돈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듣고 현장에서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해당 지역 가축방역담당자들과 가축질병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브랜드 경진대회 현행 유지키로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를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가 지난 2월 '축산물브랜드장기발전계획'에 내년부터 경진대회와 인증을 통합 운영키로 발표했으나 브랜드 경영체의 동기유발을 통한 고급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경진대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통합 운영의 반대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농림부는 경진대회를 현행대로 열기로 했다.

이로써 통합 논란을 둘러싼 이 문제는 일단락됨으로 써 일선 축산현장에서의 고급육 생산에 열기가 달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빈혈치료제 생산 형질전환 돼지 산업화



농촌진흥청은 빈혈치료제(EPO)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돼지를 산업화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공개입찰로 선정된 (주)피엠지바이오파밍과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주)피엠지

바이오파밍은 농진청으로부터 형질전환 돼지 새끼가 3두(암 2, 수1)를 인계받아 임상실험을 거친 뒤 산업화하게 된다.

새끼는 농진청이 지난 98년 개발한 유즙에서 빈혈치료제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돼지로 2002년 10월 국유특허로 등록됐으며, 지난 2004년 9월에는 영국에서 특허등록을 마쳤고, 현재는 미국 특허등록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축산연구소 R&D 협약 체결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와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지난 10월 30일 수원

소재 축산연구소에서 '축산물등급판정기술 R&D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등급판정소의 현장경험, 판정 데이터와 축산연구소의 연구개발 능력이 접목함으로써 등급판정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가격개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축산농가 연령 농업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아

최근 통계청은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집계결과를 통해 영농형태별 농가 경영주 연령을 비교, 분석

한 결과 60세 이하의 비율이 축산 61.4%로 농업 가운데 높은 편으로 나타나 타 분야보다 젊은 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영농형태별 60세 이하 농가 비율은 논벼 37.2% 과수 47.4% 채소 45.3% 특용 53% 일반밭작물 34.2%로 축산보다 낮았으나 화훼는 72%로 축산보다 높았다. 한편 축산은 40세 미만(5%)을 비롯해 40~50대(56.5%)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 축산박람회 내년 9월 대전에서 개최

축산박람회가 내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소재 센트로호텔에서 축산박람회 주관 단체 대표자인 남호경 한우협회장과 최영열 양돈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최준구 양계협회장, 장동일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 등은 축산박람회 대표자 회의를 갖고 박람회 개최 일정 및 장소 등을 논의, 확정했다.

한편 생산자 대표자들은 축산박람회 문제점 보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1월 중순 독일에서 개최되는 하노버 박람회를 참관해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사)축산물HACCP기준원 개원



(사)축산물HACCP기준원 개원식이 지난 11월 14일 축산물HACCP기준원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축산업관련 기관 및 단체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박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위생과

안전성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안전한 축산물을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부는 올해 3월 24일에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사)축산물HACCP기준원을 HACCP 담당기관으로 지정했다.

기준원은 사육농장과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사업, HACCP 기준 운용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축산물 위생관리 교육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검역원, 돼지 호흡기질병 초청강연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10월 26일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에서 선진 가축질병진단의 운영·관리와 주요 돼지 호흡기질병에 대한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미국 사우스다코타대학의 Zeman 교수가 초청을 받아 특별강연을 했으며, 강원대학교 한정희 교수가 참석해 돼지 호흡기질병 기전과 함께 PRRS, PCV2, 홍막폐렴, 파스튜렐라페렴 등 주요 호흡기 질병에 대한 특성 및 피해현황, 진단방법, 예방법 등을 설명했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에 노경상씨 선임



노경상 원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노경상씨를 원장으로 선임했다.

노경상 선임 원장은 건국대 축산대를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농림부에 첫 발을 딛고, 이후 축산국장 및 농협중앙회 상무, 농협 자회사 휴켄스 사장 등을 역임했다.

가축분뇨 활용 자연순환농업 이해 홍보자료 배포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가 합동으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의 이해'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한다.

홍보자료에는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액비를 활용할 경우 토양개량의 효과 등 이점과 좋은 퇴·액비 구별법, 사용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관련정보의 제공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홍보자료는 지역 농·축협을 비롯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에 비치해 경종농가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림부는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을 희망하는 경종농가에게 무상공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양돈협회 등을 통한 퇴·액비 공급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바이러스 발견

전라북도 익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양계 농가에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3년 12월 국내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된 뒤 3년만에 전북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닭이 수천마리가 집단 폐사한데 이어 경기 평택시에 저병원 시가 발생했다. 농림부는 이에 이동제한과 소독조치등 차단방역에 들어갔다.

한편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닭 집단 폐사의 원인은 고병원성이 아닌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해당 농장에 한해 감염된 닭이 회복될 때까지 이동 제한과 소독 조치를 취하는 '제한적' 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등급판정소&농업공학연구소 MOU 체결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9일 축산물 등급판정 및 검사기계 기술 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이 이번 MOU 체결로 향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상호 애로사항 및 현장의 기술수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유 기술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축산물 등급판정 기계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동**